

### “유럽 중심주의 관점 탈피해야”

#### 강철구 교수 ‘세계사 무비판 수용 폐해’ 지적

“세계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적용이 IMF, 지속적 한국의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 세계 경제위기,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로 지역갈등 악화 등을 초래한다.” 강철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사진)는



다는 가치관이다.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정당화를 위한 왜곡, 축소, 은폐된 세계사가 쓰여졌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불균형한 세계사가 비서양 세계의 인식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사의 바탕이 되는 생각의 틀이나 이념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을 재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시아 세계에 대해 왜곡된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를 고스란히 배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역사 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과학, 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세계사를 맹목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심주의적 세계사의 바탕이 되는 생각의 틀이나 이념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을 재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구 교수는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다. 세계사를 맹목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철구 교수는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사의 극복’을 주제로 6월 1일 참여불교리더스클럽 포럼에서 이 와 같이 주장했다.

유럽 중심주의는 유럽 문명이 비 유럽 문명에 비해 독특하고 우월하

다. 강 교수는 “이슬람 문화를 비윤리적이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종교로 인식하는 것, 신자유주의를 세계사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강의 노래를 들려라’ 4대강 공사 반대를 촉구하는 무료콘서트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5월 29일 서울 용문사에서 봉행됐다. ‘강의 노래를 들려라’는 주제로 진행된 콘서트는 1554명의 시민이 후원했다. 1만여 시민이 모인 이날 콘서트에서는 6·2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 자비 구현으로 평화 증진

### IABU·CBT ‘지구 회복·불교적 관점’ 국제불교대회서 방콕 선언

국제불교대회협회(IABU)와 공동 불교성전(CBT)은 5월 23~25일 태국 방콕과 아우타야 일원에서 ‘지구 회복·불교적 관점’을 주제로 제 7차 국제불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세계 83개국 1700여 대표단과 태국 불자 1300여 명 등 3000여 불교지도자와 학자들이 참가했다.

한국 대표로는 진월 스님(동국대학교)이 참가해 ‘선수행에 의한 정신적 회복을 통한 지구적 회복’을 주제발표했다.

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불교 수행 전통이 인간 탐욕과 증오 및 무지에서 비롯된 세계적 위기극복과 인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진월 스님은 대승불교교권을 대표한 공동불교성전 편찬위원으로 연찬에 참여했다.

공동불교성전 위원회에서는 2011년 공동불교성전 시안을 마련하고 발간을 준비하기로 논의했다. 공동불교성전은 팔리어 중심의 테라바다와 범어, 한문 중심의 마

야나 및 티베트어 중심의 바즈라야나 가운데 주제별 핵심 내용을 선별·취합해 대응용으로 작성하는 작업으로 2005년부터 기획됐다.

제7차 국제불교대회는 25일 유엔컨벤션센터에서 학술회의의 결과를 종합해 ‘불교의 지혜·자비 구현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방콕선언을 채택·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유엔 베사케이 기념축제는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이슬람은 평화 추구”

### 한국종교인평화회의·한국이슬람교 세미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최근덕)와 한국이슬람교는 6월 2일 ‘이슬람, 다가서다’를 주제로 종교 간 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반성하고,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는 장이었다.

첫 주제는 ‘무슬림에 다가가기’라는 내용으로 이주화 한국이슬람교 부이맘, 안정국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 학예연구교수가 각각 ‘이슬람·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이주 무슬림 2세’를 발표했다. 이주화 부이맘은 “한국은 이슬람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에 의해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화 부이맘은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평화를 추구하다’ ‘복종하다’ ‘귀의하다’는 뜻이며, 무슬림들의 인식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깃들길 기원합니다’는 축원”이라고 설명했다.

안정국 교수는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현황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년 10월) 통계자료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 116만 명 중 무슬림은 약 8만

여 명으로 7% 정도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20~30년 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코슬림이 한국에 이슬람의 사상적 기반 논리를 제공하면서 ‘한국 이슬람’을 정립할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여 년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권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조주 스님은 이슬람과 전통문화가 융합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배려와 관용, 포용성을 체험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슬림의 타종교에 대한 무지함도 목격했다.

권경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토론에서 “사회정책과 종교문화적 접근방안을 동시에 시행해 앞으로 일어날 사회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 중 육조사와 연계 인재양성 나서

### 폐교 불교대학으로... 혜능국제불교대 개교



5월 31일 혜능국제불교대학 개교식에서 참가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 육조선원(방장 연화)은 5월 31일 원주시 귀래면 소재 舊 용암 초교에서 혜능국제불교대학 개교식을 개최했다.

혜능국제불교대학의 현판은 중국 육조사 방장 석대원 스님의 글씨를 조각해 의미를 더했다.

폐교를 임대해 개교한 혜능국제 불교대학은 2년 과정으로 신심 있는 사부대중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단, 수료와 자격증 교부에는 철저한 시험·심의를 거쳐 양질의 불교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033)766-2556 조동섭 기자

## 100자 뉴스

### 감로사 충담 스님 열반 12주년 추모영산제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15일 오전 11시 가평 감로사에서 충담 스님(태고종 승정) 열반 제12주년 추모제와 학술발표회를 봉행한다. 추모제에 앞서 열리는 학술발표회에서는 최성렬 조선대 교수가 주제논문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과 불자의 자세’를 발표한다.

주지 지성 스님은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소신공양으로 화중생연을 피운 충담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회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부대중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담 스님은 분단조국 통일, 생로병사 중생제도, 불교계 화합흥륭 등 3대 원력을 세우고 1998년 6월 27일 감로사 미륵부처님 전에 소신공양했다. (031)584-0117 조동섭 기자

### 송림사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 19~20일

익산 송림사(주지 지광)는 6월 19~20일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송림사 인근 송천마을에서 개최되는 제2회 장수마을축제인 블루베리축제와 연계해 사찰문화체험(참선, 바루공양, 다도) 블루베리수확 체험 및 음료시음, 블루베리 케익만들기, 문화예술공연, 전통놀이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일반인 3만원, 초등학생 1만원, 중고생 2만원이다. (063)862-6396 조동섭 기자

### 공주시 ‘마곡사 토요일’ 10월까지 상설운영

공주시는 작은 음악회인 ‘마곡사 토요일’을 6월 5일~10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천년고찰 마곡사 관공사에서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기존 무대에 지붕과 조명시설 등을 보강 설치해 관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또, 통기타, 퓨전밴드,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천년고찰 마곡사만이 갖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화를 이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태목 공주시 관광축제팀장은 “올해는 ‘대충청방문의 해’이면서, 2010 세계대백제전 등 굵직한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해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을 이용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요일대가 마곡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쁜 추억을 남기는 계기가 되도록 공연기획 등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헤철 충청지사장

### 선진 스님 ‘하루헌과 친구들’ 전시회 개막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이 6월 1~6일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지역 미술인들과 함께 제7회 하루헌과 친구들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터넷 카페 하루헌을 통해 교류하는 지역 미술작가 33인이 참가해 원호 스님의 사상인 ‘화평’을 주제로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선진 스님은 “우리 사회의 이원론적 갈등, 대립과 혼돈의 문제를 예술적 표현으로 끌어내 소통과 공존의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의도로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불교인권위 “MB정부는 국민 두려워하라”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이하 인권위는 ‘6·2 지방선거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드러났다.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한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총리 등 내각과 청와대 수석 총사퇴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세종시의 원안 시행 △금강산 방문 속개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신용상인(유명)가수  
 ■재능: 순교(불교)현존  
 ■특: 유서(한)구(상)문자  
 ■노: 4시(10cm)  
 ■제작: 1.5cm  
 ■관공: 30cm  
 ■무: 1.2kg

##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운장대)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륜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